

2024 새해 이렇게

박우량 신안군수

사계절 꽃 피는 섬, 문화예술 숨 쉬는 신안 이루겠다



1섬 1뮤지엄·1섬 1정원화 사업으로 다양한 전시 기회 제공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 평생연금 수혜 범위 넓혀 나갈 것

"1섬 1뮤지엄, 1섬 1정원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사계절 꽃이 피고 문화예술이 숨 쉬는 신안을 만들겠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4일 광주일보와 새해 인터뷰에서 "섬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운 신안, 사계절 꽃이 피는 섬, 문화예술이 숨 쉬는 신안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 군수가 내건 올해 국정 방향은 ▲문화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신안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정책 ▲신재생 에너지와 복지 확대 ▲교육·교통 인프라 개선 등이 있다.

신안군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이 꽃피는 1004섬을 만들기 위해 '1섬 1뮤지엄(미술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현재 15곳 조성을 마무리했으며, 11곳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신안군은 예술섬 재단을 운영해 지역민에게 다

양한 전시와 교육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6월에는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될 예정이다. 이는 자문도에 조성될 '피아노의 섬', 5월에 개최하는 피아노 축제와 연계 효과를 낼 것으로 신안군 측은 기대했다.

1섬 1뮤지엄과 함께 신안군은 '사계절 꽃이 피는 섬'으로 거듭나기 위한 '1섬 1정원화'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지역마다 정원을 조성한 뒤 속도 작약축제, 임자도 홍매화 축제, 중도 향기의 축제 등 관련 축제를 열어 방문객 유치 효과를 볼 예정이다.

앞대도에는 암석 지방정원을 조성하고, 자문면과 임자면에는 치유의 숲을 조성해 생태계 보전을 위한 조경사업을 추진한다.

박 군수는 "농축산업과 수산자원 개발은 신안 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이라

고 강조하며 "아열대작물 재배와 청년 경영 실습 임대농장 조성 등 고소득 전략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군은 전략 산업의 하나로 개체굴 수출을 확대하고, 스마트 양식 집적단지 조성, 김 양식 산업 지원, 염전 주변 친환경 개선 작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은 지역 미래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신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박 군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통해 평생연금 수혜 범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해부터 햇빛연금 수혜 지역을 비금도, 중도, 신의도로 확대하면서 햇빛아동수당의 지급액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군은 현재 추진 중인 8.2GW 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더불어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정부 공모사업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신안군은 앞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 단위 신재생에너지재단을 설립했다. 이를 통해 지역민 복지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보탬을 줄 예정이다.

박 군수는 "지역 노인 인구 비율이 약 37%에 달하는 만큼 복지정책에 중요한 비중을 두겠다"며 지도·임자·도초·신의·안좌 등 5개 섬에 공립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을 신축하거나 개선 공사를 계획했다.

그는 또 신안군을 세계적인 해양생태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신안갯벌의 보존과 발전에 주력하면서, 갯벌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과 탄소 정보 수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 군수는 "비금-앞대 추포 간 연도교, 자라-장산 연도교 건설, 압해 신장-학교간 도로 개설, 그리고 확산공항 건설의 조기 착공으로 섬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교통체계가 구축되면서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 교통, 관광, 생활시설 등에서 사용 가능한 통합복지카드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의 편의성을 더욱 향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군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 정부 예산 450억원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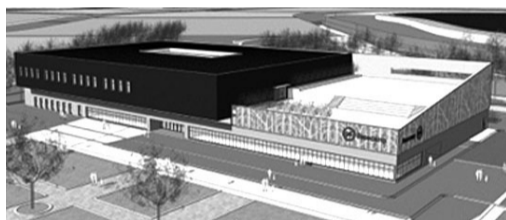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2028년 준공

해남군 탄소중립(녹색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2024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서 국비 45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탄소중립 집적단지(클러스터)는 태양광 사용 후 패널의 재처리 기술 연구개발과 실증화, 판로 개척 등 전주기 지원시설이다. 환경부에서 총사업비 450억원을 투입해 솔라시도 기업도시 3만 4000㎡ 면적에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에는 R&D(연구개발) 시설과 실증 테스트 베드, 시험·인증센터, 기업지원시설 등이 들어설게 된다.

환경부 장관이 해남군을 녹색융합클러스터사업 대상지로 신규 지정할 계획으로, 올해 기본구상계획



'탄소중립 집적단지' 조감도.

용역을 시작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증가하면서 사용 후 패널 발생량도 급증하고 있다. 오는 2029년에는 전국적으로 6796t의 사용후 패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탄소중립 집적단지가 조성되면 태양광 사용 후 패널 재활용과 재이용 기반 기술 등을 개발하는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할 것으로 해남군 측은 기대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425억원 규모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도 추진되고 있다. 올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5년 착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탄소중립 달성과 미래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 교육센터인 탄소중립 에듀센터와 녹색융합 클러스터가 잇따라 들어서게 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 벨트 조성의 하나로 추진해온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이젠 최종 확정되면서 해남군은 명실상부한 탄소중립 1번지로 급부상할 전망"이라며 "사업추진에 온 힘을 쏟아 미래지향적이고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솔라시도 기업도시 목표 구현에 다 가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은 영광지역 한우 농장.

<영광군 제공>

영광군 4개 농장 '저탄소 축산물 인증' 선정

지난해 전국서 가장 많이 배출

영광군은 지난해 하반기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에 4개 농장이 선정돼 전국에서 저탄소 농장을 가장 많이 배출했다고 3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44개 농장을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로 선정했다.

영광에서는 부농축산, 태산농장, 해오름농장, 민들레농장이 신규 인증 농가로 뽑혔다.

이들 농장은 분뇨 감축과 조기 출하 부문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은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무항생제 사용 등 탄소 감축 기술을 도입한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농식품부가 인증하고 있다. 축종

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 10% 이상 적게 배출하면 인증받을 수 있다.

저탄소 축산물은 인증 표시를 달고 시중에 판매된다. 축산물 이력시스템에서 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성기 영광군 축산식품과장은 "축산농가의 지속적인 탄소 저감 노력과 관심 덕분에 지난해 하반기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도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저탄소 축산물 인증 축종을 한우에서 양돈·낙농까지 확대해 선정할 계획이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목포시 한국나전칠기 박물관 건립 시민 공청회

목포시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목포자연사 박물관에서 한국나전칠기 박물관(가칭) 건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시민들에게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에 대한 기본계획·구상을 설명한다.

이 행사는 박물관의 위치, 규모, 운영, 활용 방안 등 박물관 건립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는 '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로 시작한다.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발전 방안에 관한 지정 토론자 4명의 주제 발표,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지정 토론자로는 이철용 한국공예예술가협회장, 전우용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 이한근 목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심원섭 목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가 나선다. 공청회는 목포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주제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

목포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이달 중 실시할 박물관 설립과 관련한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박물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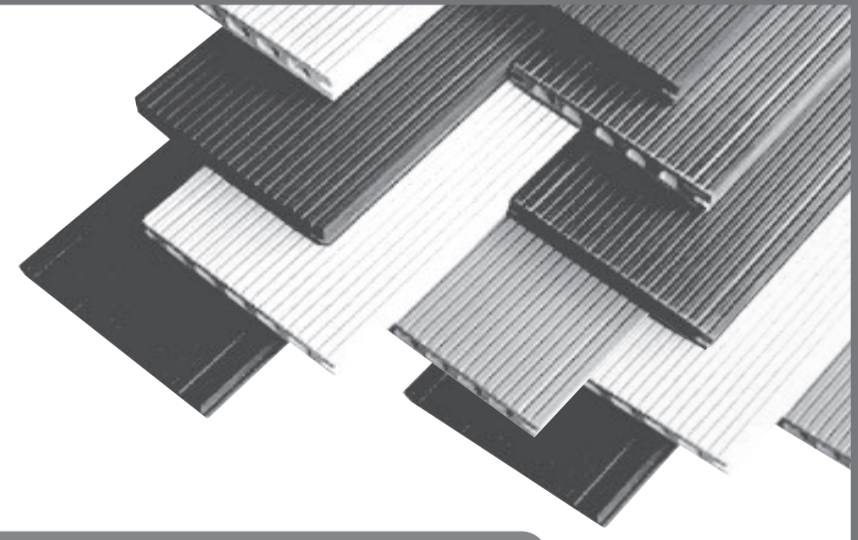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원하는 박물관의 모습을 완성 시키기 위해 초기 의견 수렴 단계가 중요하다"며 "박물관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시민들의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공립박물관 설립의 첫 행정절차인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서'를 이달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5090010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